

빠른 정답

[제10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②	2	⑤	3	④
4	③	5	①	6	③
7	④	8	⑤		

[제11회]

번호	정답	번호	정답	번호	정답
1	②	2	③	3	④
4	③	5	③	6	③
7	⑤	8	⑤	9	④
10	⑤				

정답과 해설

[10회차]

암호화폐 채굴

1.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해설

- ② 4문단에 따르면, "채굴자는 노드로부터 전송받은 유효한 거래를 일정한 단위로 모아 하나의 블록을 구성한다." 따라서 채굴자는 노드가 검증한 유효한 거래들을 활용해 블록을 구성한다는 설명이 가장 적절하다.

오답탐기

- ① 2문단에 따르면, 블록체인의 무결성은 참여자 전원이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블록의 내용이 무단으로 변경되면 블록체인과의 연결이 끊어지는 방식을 통해 확보된다.
- ③ 3문단에 따르면, 블록과 조건의 적합성을 판단하는 것은 채굴자의 역할이며, 거래 참여자의 역할이 아니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논스의 값이 커지더라도 해시값의 길이는 256비트로 고정되어 있다.
- ⑤ 5문단의 반감기에 대한 설명에 따르면, 블록 생성 보상이 줄어들면 암호화폐의 가치는 하락하는 것이 아니라 높아진다.

2. 핵심 개념 추론

답 ⑤

해설

- ⑤ 3문단에 따르면 해시값은 입력값이 조금이라도 변한다면 완전히 다른 값을 산출하기에 입력값에 더해지는 이전 논스와 가까운 값을 입력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탐기

- ① 4문단에 따르면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네트워

크의 시간당 블록 생성 개수가 감소하기에, 암호화폐가 과도하게 생산되고 있다고 판단될 경우 네트워크는 해시값의 조건을 까다롭게 변경할 수 있다.

- ② 4문단에 따르면 채굴자들은 논스를 대입해가며 해시값을 생성하기에 채굴자의 논스 대입 속도가 빨라질수록 네트워크가 승인할 수 있는 해시값을 산출할 확률이 높아진다.
- ③ 4문단에 따르면 조건이 까다로워질수록 블록 생성 개수는 감소한다. 이는 조건이 완화되면 블록 생성 개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조건이 '출력값은 0000으로 시작해야 한다.'에서 '출력값은 000으로 시작해야 한다.'로 변화하였기에 조건은 완화된 것이다. 000으로 시작해야 하는 조건은 0000으로 시작하는 조건을 포함하기에, 더 많은 출력값이 해당 조건에 부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암호화폐의 생산량은 증가할 수 있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해시 함수는 입력값의 길이와 무관하게 256비트의 출력값을 생성하므로, 이전 거래 내역이 열 건인 경우와 스무 건인 경우 산출된 해시값의 길이는 동일하다.

3.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답 ④

해설

- ④ 암호화폐 C는 블록 생성 조건이 까다롭게 변경될 예정이므로, 암호화폐의 생산량을 줄이고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암호화폐 C의 네트워크가 암호화폐 A와 달리 가치 하락에 긍정적이라는 설명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탐기

- ① 5문단에 따르면, 암호화폐 A의 네트워크는 채굴 보상을 하락시킴으로써 채굴자를 감소시켜 과도한 생산을 방지된다.
- ② 5문단에 따르면, 암호화폐의 가치가 상승된다면 새로운 채굴자들이 유입된다. 이는 채굴자 이탈의 영향을 줄여준다.
- ③ 암호화폐 C의 채굴자들은 출력값을 이전보다 자주 내보낸다면 조건에 부합하는 해시값을 생성할 확률이 높아지기에 조건 변경의 영향을 덜 받는다.
- ⑤ 암호화폐 B와 암호화폐 C의 네트워크는 각각 반감기와 블록 생성 조건 변경을 통해 생산량을 조절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하였다.

4. 어휘의 문맥적 의미 파악

답 ③

해설

- ⑥의 '지닌다'와 ③의 '지니고'는 '바탕으로 갖추고 있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오답탐기

- ①의 '지니고'와 ⑤의 '지녔다'는 '몸에 간직하여 가지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②의 '지니고'는 '기억하여 잊지 않고 새겨 두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 ④의 '지니고'는 '본래의 모양을 그대로 간직하다.'의 의미로 사용되었다.

고전소설

작자 미상, 「유충렬전」

5.

답 ①

정답

- ①: [A]에서 서술자가 '가련하다 유충렬이 적장 피에 빠져 함정에 들었으니 곧 숨이 끊어지는구나.'라며 유충렬에 대하여 가련하다고 평가를 제시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오답해설

- ②: [A]에서는 인물의 회상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A]에서는 현재와 과거의 교차도 확인할 수 없고 장면의 전환도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A]에서는 꿈과 현실의 교차를 확인할 수 없다. 꿈에 빠져드는 인물의 모습을 확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지의 해석은 적절하지 않다.
- ⑤: [A]에서는 인물 간의 대화를 확인할 수 없다. 인물의 발화는 '향복하라'뿐이며, 이에 대한 상대의 대답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라 볼 수 없다. 또한 [A]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서로 적대적인 관계이기 때문에 인물 간의 호의를 보여준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6.

답 ③

정답

- ③: 윗글에서 유충렬이 적진에 들어가서 정한담에게 향복을 요구하는 모습은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유충렬이 적진에 들어가자 적군이 유충렬에게 향복하라고 요구하는 모습만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윗글에서 도사가 정한담을 본진에 귀환시키자 정한담은 도사에게 어찌 알고 자신을 불렀냐며 묻고 있으며 이에 도사가 한담이 만분 위태하여 불렀다고 답하였다. 따라서 정한담은 도사에게 자신을 귀환시킨 이유를 묻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윗글에서 도사는 정한담에게 유충렬은 유심의 아들이니 유심을 잡자고 제안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윗글에서 유심은 군사가 자신을 잡자, 천자가 승전하였으면 자신을 잡아 오라고 할 리가 없다며 충렬이 정녕 죽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윗글에서 정한담은 유심에게 유심을 생각하여서 유심의 아들인 충렬을 아직 살려 두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답 ④

정답

- ④: ㉔에서 정한담은 고관대작은 원대로 할 것이라며 유심에게 자신을 도우면 주어진 보상을 들며 회유하고 있으며, ㉕에서 유심은 정한담을 만고역적이라 비난하며 회유를 거절하고 있다. 따라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11회차]

페토의 역할

1. 세부 내용 파악

답 ②

해설

2문단에서 암 억제 단백질인 p53은 암 억제 유전자인 TP53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는 것은 p21 등 p53에 의해 유도되는 여러 단백질의 작용이다. 즉, '암 억제 유전자(TP53)' 자체가 곧바로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는 것은 아니다.

오답넘기

- ① 1문단에서 모든 세포가 암이 될 가능성이 있다면 몸집이 큰 생물일수록 암 사망률이 높아야 하지만, 실제로는 유의미한 상관관계가 없다. 이를 페토의 역할이라 한다고 하였으므로 적절하다.
- ③ 3문단에서 p53은 주변 조직에 큰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는 단백질을 발현해 내부에서 세포를 파괴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적절하다.
- ④ 4문단에서 하위 종양의 성장이 저해되는 경우도 있다고 서술되었다. 이는 기존 종양이 지닌 생존에 유리한 특성에서 기인할 수 있기에 적절하다.
- ⑤ 5문단에서 포유류의 세포 크기는 비슷하기에 몸집이 커질수록 동일한 크기의 악성 종양이 미치는 영향은 줄어든다고 하였으므로, 몸집이 작아지면 그 반대가 되어 영향이 커진다.

2. 핵심 개념 이해

답 ③

해설

3문단에서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지 못하면 p53에 의해 자멸사가 유도되고, 파괴된 세포 내부 성분은 주변 세포에 흡수된다고 하였다. p21도 세포 내부 단백질이므로 세포가 자멸사하면 그 내부 물질은 주변 세포가 흡수할 것이다.

오답넘기

- ① 3문단에 따르면 p53은 세포 손상이 감지되면 활성화되어 세포 주기를 정지시킨다. 손상이 복구되어 세포 주기가 재개되었다면 p53은 비활성화 상태로 돌아간다.
- ② p21 기능에 결함이 생기면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는 과정 자체가 제대로 이뤄지지 어렵다. 또한 p53은 p21과 다른 단백질을 통해서 복구나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
- ④ 4문단에 따르면 중복 종양은 하위 종양이 생존에 유리한 특성을 지녀 기존 종양과 경쟁을 일으켜 암의 성장을 저해한다. 그러나 하위 종양이 불리한 특성을 갖는다고 해서 바로 암 발병률이 감소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지문과 어긋난다. 오히려 기존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지 못해 암의 발병률이 상승할 수 있다.
- ⑤ 4문단과 5문단에 따르면 여러 종양이 서로 경쟁수록 종양 전체가 치명적 수준까지 커지기 어렵게 된다. 하위 종양이 많으면 종양 간 경쟁이 더욱 심화되어 오히려 암 진행이 제한될 수 있기에 하위 종양이 많으면 불리하다고 할 수 없다.

3. 핵심 개념 이해

답 ④

해설

3문단에 따르면 손상된 세포가 복구되지 못하면 p53이 자멸사를 유도하며, 이 과정에서 세포 내부 성분은 주변 세포에 흡수된다. 이는 세포가 내부에서 스스로 파괴되는 자멸사 방식이다.

오답넘기

- ① 지문은 p53이 세포 내부의 DNA 손상을 감지해 활성화된다고 설명한다.
- ② 3문단에 따르면 흡수되는 것은 자멸사로 파괴된 세포이며, 회복된 세포는 주변에 흡수되지 않는다.
- ③ 2문단에서 p53은 암 억제 유전자인 TP53에 의해 만들어진다고 했다. 여러 단백질이 만든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
- ⑤ 세포 주기를 정지시키려면 p53이 활성화되어 p21 등의 단백질을 발현해야 한다. 비활성화 상태에서는 세포 주기 정지가 일어나지 않는다.

4. 구체적 사례에의 적용

답 ③

해설

4문단과 5문단에서 대형 동물일수록 중복 종양 기전 등에 의해 암의 치명성이 덜할 수 있다고 했지만, 세포 크기로 암세포 발현 자체가 억제되는 것은 아니다. (다)가 제시한 '세포가 작아서'라는 가정은 단순히 종양 크기와 치명성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이지, 발현 자체를 억제한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

오답넘기

- ① (가)는 p53과 동일한 역할의 단백질이 존재하므로 p53만 존재하는 경우보다 효율적인 손상 감지와 세포 복구 혹은 자멸사가 가능하다고 예상할 수 있다. (나)는 세포 주기 중단 단백질 자체가 효율적으로 발현되어 손상 복구나 사멸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두 입장은 모두 종양을 억제하지만 방법에는 차이가 있다.
- ② (나)는 세포 주기 중단 단백질이라는 내부 기전을 중시하고, (다)는 세포 크기가 작다는 물리적인 특성을 중시한다. 서로 억제 기전의 초점이 다르다.
- ④ (가)는 p53 유사 단백질, (나)는 효율적인 세포 주기 중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세포 손상을 복구할 수 있기에 적절하다.
- ⑤ (나)는 세포 내부 단백질의 효율적 발현이라는 세포의 특성, (다)는 세포가 작다는 물리적 특성을 원인으로 암 사망률이 낮다고 설명한다. 1문단에 따르면 중복 종양과 종양 억제제의 두 가지 설명 방법은 생물의 크기와 암 발병률사이의 상관관계가 유의미하지 않다고 하였기에 적절하다.

갈래복합

- (가) 오규원, 「문」
- (나) 한용운, 「님의 침묵」
- (다) 안재진, 「이별 연습」

5.

답 ③

정답

- ③: (다)는 화자가 읽고 있는 대상들을 열거하여 시상을 전개하지만, (나)에서는 대상의 열거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가)는 '어느 집이나 문이 있다'라는 문장을 반복하여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나)는 '푸른'이라는 색채어를 사용해 산빛을 표현함으로써 시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다)는 어제 화자가 어머니의 무덤에서 이전과 다른 감정을 느꼈던 경험을 서술함으로써 어머니의 정지된 세월에 대한 정서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가)는 1연의 첫 행이 '-다'로 끝나며 마지막 행이 '-뭇'으로 끝나는데, 3연도 이와 마찬가지로 구조의 반복을 통해 운율감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다)는 '휴지 조각처럼 무심히 던질 수 있을까?'라는 문장에서 무심히 던지는 행위의 대상을 휴지 조각에 비유하고 있으므로 비유를 통해 대상을 표현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6.

답 ③

정답

- ③: 문이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 것은 일상 세계에 어긋나는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문'이 '두드린다고 해서 열리지 않는다'는 것은 일상 세계에 어긋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라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문이 '반드시 열리기도 하고 또 닫히기도 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에 대한 일상 세계와 어긋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며 이는 언어가 상식과 어긋나게 쓰인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상식과 어긋나게 쓰인 언어의 진의를 파악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문은 열림과 닫힘의 속성을 동시에 지닌 존재이다. 따라서 문이라고 해서 모두 닫히고 열리라는 확증이 없다는 것은 일상 세계에 어긋나는 상황이 제시된 것이다. 따라서 이를 통해 일상적으로 쓰이던 언어의 의미를 의심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문이 열렸다고 해서 언제나 열려 있지 않으며 닫혀 있다고 해서 언제나 닫혀 있지 않다는 것은 일상 세계와 부합하는 상황을 제시한 것이다. 그리고 선지의 구절에서 열림과 닫힘은 서로 대립적인 속성이고, 따라서 제시된 구절에서 단어의 대립과 긴장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 사이에서 일정한 맥락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문이 담이나 벽을 뚫고 들어가서 담이나 벽이 되거나 담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되지 말라는 법이 없다는 것은 문이 열림의 속성을 잃고 닫힘의 속성을 지닌 담이나 벽이 될 수도, 또는 닫힘의 속성이 강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문에 대한 작가의 새로운 시선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선지의 구절에서 작가가 제시한 현실에 대한 새로운 시선을 파악할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7.

답 ⑤

정답

- ⑤: 화자는 님과 이별한 상황이고, 화자는 이별로 인한 슬픔의 힘을 옮겨서 새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부었다고 하였다. 이때, 슬픔의 힘을 옮겨서 희망의 정수박이에 들어붓는 행위는 슬픔을 희망으로 치환시키는 것이므로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가 드러난다. 따라서 '들어부었습니다'는 현재 상황에 대한 화자의 극복 의지를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오답해설

- ①: 직전의 문장은 님이 갔다는 사실을 드러내는 문장이다. 또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 차마 떨치고 갔으므로, 차마 떨치고 간 사람은 '님'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푸른 산빛을 깨치고 단풍나무 숲을 향하여 난 작은 길을 걸어서'는 화자가 처했던 상황이 아닌 님이 떨치고 가는 상황을 표현하는 말이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②: '황금의 꽃'이라는 표현은 옛 맹서를 비유하는 말이다. 따라서 화자가 현재 처해있는 상황이 아닌 과거 화자가 님과 이별하기 전의 상황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드러내는 표현이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③: '날카로운'이라는 표현은 첫 키스의 추억을 수식하는 말이므로 이는 님에 대한 화자의 부정적 정서와 관련이 없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 ④: 화자는 '만날 때에 미리 떠날 것을 염려하고 경계하'였으므로 화자에게 이별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아니다. 따라서 '뜻 밖의 일'과 '놀란 가슴'은 이별에 대한 화자의 놀라움을 드러내는 말이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8. 답 ⑤

정답

⑤: '나'는 자유를 느낄 수 있기에 미련 없이 모든 걸 버릴 수 있는 마음을 키울 수 있다고 한다. 또한, ㉔는 사랑이니 영광이니 행복이니 하는 것들을 한자 휴지 조각처럼 무심히 던지기 위해서 이 길을 끊임없이 걸어야 함을 강조한다. 백락상 이 길을 걷는 것은 자유를 느끼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으므로, ㉔는 모든 것을 '휴지 조각처럼 무심히 던지기' 위해서는 '자유를 느끼는 행위가 꾸준히 필요함을 서술하고 있다. 그러므로 자유를 느끼기 위해서 모든 것을 휴지 조각처럼 무심히 던지는 마음이 꾸준히 필요하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나'는 지금껏 살아오며 어머니에 대한 연민으로 가슴을 앓았는데, 그 아픔의 바닥에는 존재에 대한 애착과 삶의 그늘, 지금쯤이면 기쁨을 찾아드릴 수 있을 것이라는 보상 같은 환상이 깔려 있었다. ㉔는 그 아픔의 바닥에 있는 것들로 인한 '나'의 감정을 드러내는 말이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직전 문장에서 '나'가 지금까지 어머니를 떠올리며 들었던 기분을 서술하고 있었다. 따라서 ㉔는 '나'가 어머니에 대해 '어제' 느낀 감정이 이전까지 느낀 감정들과 다름을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새롭게 다가선 어머니의 모습'의 이유에 관하여 '나'는 굳이 따져서 무언가 있고 있는 자신의 외로움 때문이라 말했다. 또한 직후 ㉔에서 자신이 있고 있는 것들을 열거하고 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④: ㉔의 '그 때'는 '오십대 후반'을 가리킨다. 따라서 ㉔가 '서서히 버리는' 것을 '오십대 후반' 때보다 더 진지하고 절박하게 인식하고 있음을 드러낸다는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9. 답 ④

정답

④: '사랑의 노래'는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들고 있다. 이는 님에 대한 '나'의 사랑이 님의 부재 때문에 닿지 못함을 드러내는 소재이므로 ㉔이 '님'과 일체가 되는 대상이라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문'은 '답이나 벽'이 될 수도 있고 '답이나 벽'보다 더 든든한 문이 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사랑의 노래'는 님이 부재한 상황에서 님의 침묵을 휩싸고 들고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나'는 어머니의 무덤에서 지금껏 어머니에 관해 느꼈던 감정과 다른 감정을 느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⑤: '나'가 '의식의 질문'을 던지게 된 이유는 가련한 어머니의 모습이 행복한 모습으로 반전되었기 때문이라 볼 수 있다. 또한 '나'는 어머니의 무덤에 방문하여 이전과 다르게 어머니의 정지된 세월이 무척 행복할 것이라 느꼈으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10. 답 ⑤

정답

⑤: (나)의 화자는 자신이 이별한 상황에서 슬픔의 힘을 옮겨 새 희망에 정수박이에 들어붓고 있다. 또한 바로 뒤의 '떠날 때에 다시 만날 것을 믿는다'는 말을 통해 화자는 이별한 상황에서도 재회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다)에서 '어머니의 정지된 세월이 무척 행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것은 죽음을 받아들일 힘을 얻은 것이 아니라, 화자가 능동적으로 죽음을 받아들이는 태도의 함양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특정한 장소에서의 경험이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지 않다.

오답해설

- ①: (나)에서 '옛 맹서'는 '님'과 화자가 한 과거의 맹서를 의미하므로 과거 자신의 상황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 화자는 '님'과 이별한 상황이므로 '옛 맹서'가 '차디찬 티끌이 되어서 한숨의 미풍에 날아간 것은 '님'과 이별한 화자의 현재 상황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②: (다)의 화자는 '어머니의 무덤'에 방문하여서 이전에는 어머니의 모습을 가련하다고 느꼈던 것과 달리, 어머니의 모습을 행복한 모습으로 느끼고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③: (나)에서 화자는 '향기로운 님의 말소리에 귀먹고, 꽃다운 님의 얼굴에 눈멀었습니다.'라는 과장된 표현을 통해 '님'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
- ④: (다)에서 '나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는 것은 자신이 언젠가 죽음을 맞이할 것을 인지하는 것이다. 또한 서서히 버리는 연습은 모든 것들을 무심히 버리기 위한 연습을 의미한

다. 그러므로 선지의 진술은 적절하다.